

# “순천의 수준 높은 정원문화 알리고 싶었어요”

### 석연경 시인 ‘시와 함께하는 순천정원문화 산책’

#### 국가·민간·사찰·전통 정원 등 시·사진으로 갈무리

순천은 사찰정원과 정자정원 등 정원의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온 도시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순천만습지는 천혜의 자연자원으로 손색이 없으며, 곳곳에 산재한 유서 깊은 문화자원들은 도시의 자부심을 대변한다.



석연경 시인

특히 선암사는 자연과 전통 전각이 잘 어우러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한국 3대 사찰 중 하나인 송광사는 역사적 생태적으로 중요한 사찰숲과 수목이 많아 전통 정원으로서의 의미가 깊다. 낙안 읍성의 노거수 또한 읍성 정원의 운치를 더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순천의 국가정원, 민간정원, 사찰정원, 전통정원 등을 시와 사진으로 갈무리한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석연경 시인은 최근 순천 정원문화를 소개하는 ‘시와 함께하는 순천정원문화’ (순천문화원)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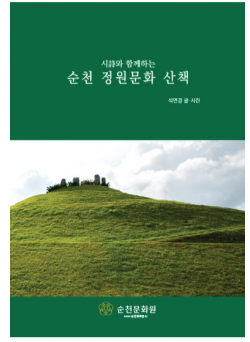
“순천 정원박람회가 2013년에 1차로 개최되고 한국 최초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2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순천은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도약했지요. 순천의 수준 높은 정원문화를 정리하고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책에는 석 시인이 직접 쓴 시와 산문, 각각의 사진들이 담겨 있다. 순천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을 담아하면서도 감성적인 문체로 그렸다. 정원을 다면적으로 이해하는 길잡이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저자는 “3년 정도 작업 기간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사진을 찍었다”며 “각 정원마다 풍부한 사진 자료와 산문과 시가 어우러져 순천정원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책은 총 13장, 총 500페이지로 구성돼 있다. 시인은 순천을 하나의 큰 정원으로 상정하고, 이



순천만정원 내 프랑스 정원.

<석연경 시인 제공>



<석연경 시인 제공>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 소장 석연경 시인이 최근 ‘시와 함께하는 순천정원문화 산책’을 펴냈다.

를 토대로 각각의 정원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에 주목했다. 국가 정원은 물론 다양한 민간정원 40여 군데를 답사하고 관계자 등을 만나 인터뷰한 것이다.

그는 “국가 정원 안에 프랑스 정원, 영국 정원, 독일 정원, 이탈리아 정원 등 외에도 학교 정원인 순천대 정원, 순천고 정원 등도 아우른다”며 “정원마다 그에 맞는 시를 붙였으며 사진도 수록했다”고 전

했다. 전통정원에 대한 내용도 있다. 일반인들에게 익히 알려진 선암사 정원, 송광사 정원이 대표적이다. “전통정원 중 선암사 정원, 송광사 정원, 정자정원 가운데 연자루 등도 있어요. 특히 한국 삼대 사찰 중 하나인 송광사는 역사나 생태적으로 중요하니까. 사찰숲과 다양한 수목이 발하는 운치와 숲의 향기는 일상에 찌든 이들에게 힐링과 위안을 선사하지요.”

낙안읍성의 노거수 또한 읍성 정원의 매력을 발산한다. 오래된 읍성과 오래된 고목, 오래된 정원에 깃든 고아한 풍취는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위안과 영감을 준다.

특히 특유의 감성으로 빛어낸 시들과 어우러진 사진은 읽는 맛과 보는 맛을 준다. “세상 옷 입지 않고/ 발가벗은 나와 너/ 나무 위에 집을 짓고/ 풀피리 불며 춤춘다” (‘월시의 숲’ 중), “나무와 꽃들이 마음껏/ 자신의 존재를 펼쳐 내는 곳/ 나비와 새들이/ 정원을 날아다니며/ 자유를 누리는 곳” (‘지구동문’ 중)

한편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석 시인은 그동안 다양한 책을 펴냈다. 시집 ‘독수리의 날들’, ‘섬광, 쇠빙산’, ‘푸른 벽을 세우다’, ‘탕탕’을 비롯해 순천사찰 시사집집 ‘등근 거울’, 월령잡언시집 ‘굴길’ 등을 발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그들은 우리가 된다’

#### 이매리 특별전, 9월 4일~10월 6일 예술공간 집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상이하다. 온정적일 수 있고 다소 배타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두 시선이 혼재되기도 한다.

이주사와 전쟁사, 인류사 등 복합적인 프리즘으로 이주민 문제를 초점화한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특히 전시가 광주비엔날레 개막기간에 맞춰 열려 이주사의 의미 등을 다각도로 사유할 수 있게 한다.

이매리 작가의 ‘그들은 우리가 된다’전이 예술공간 집에서 열린다.

오는 9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고려인마을’을 모티브로 이주사와 전쟁사를 확장적으로 시각화했다.

그동안 작가는 인류의 근원과 자신의 근원에 대한 미적 탐구를 지속해왔다. 4년 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예술을 매개로 포용과 공감의 시선을 견지한다.

그는 “고려인 마을로 이주해 온 주민들이 어떻게 왔고 이주의 근원적인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했다”며 “작업을 하는 동안 이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태도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의 사유를 할 수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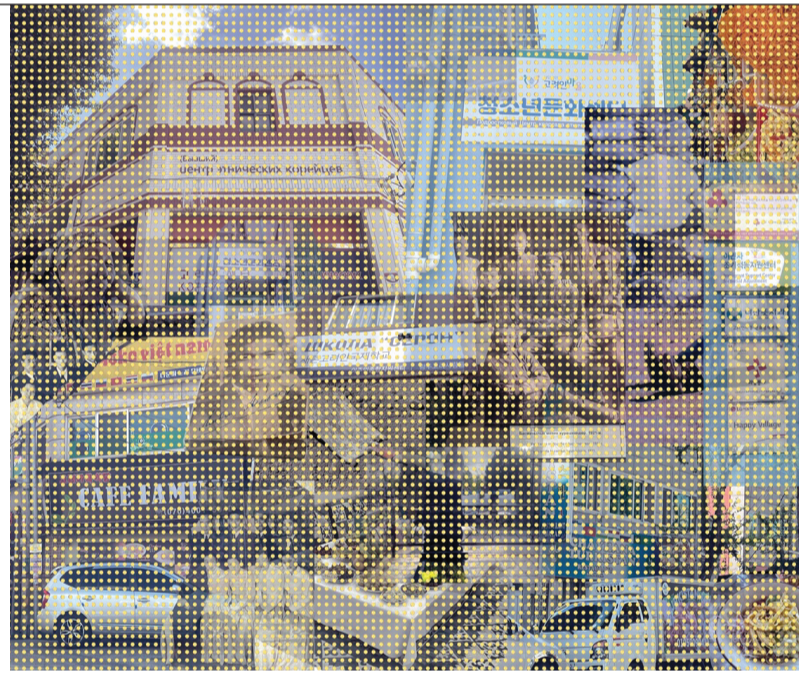
다”고 말했다.

이번 주제 ‘그들은 우리가 된다’는 유발 하라리의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에서 차용했다. 문장은 ‘그들’에서 ‘우리’로 향하는 작가의 시선을 포괄적으로 대변한다.

전시는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섹션 ‘7천개의 별과 약속의 땅 2024’은 고려인 마을에 송출되고 있는 ‘GBS고려방송 (FM93.1Mhz)’을 활용한 복합 매체 설치 작품이다. 이미지와 사운드가 복합적으로 펼쳐지며 그들의 삶과 현재의 모습 등을 보여준다.

두 번째 섹션은 ‘이민자의 물건들……’이다. 실제 이주민에게서 작품 속 사물들을 수집했다. 고향의 기억이 각인된 ‘사물’은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비롯된 작품이다.

세 번째 섹션 ‘시대사적 사건들의 드로잉 Map’



‘Poetry Delivery’

은 이주역사를 시각화했다. 전쟁과 이주의 과정 등 굴곡진 시대사적 사건들에 대한 Map이 드로잉 형식의 작품으로 생성됐다.

한편 문화영 관장은 “이번 전시는 이주사와 전쟁사 등이 엮인 역사의 서사를 작가만의 관점으로 풀어냈다”며 “비엔날레 개막기간 광주를 찾는 이들과 함께 인류의 지난한 역사와 현재의 시간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턱’ 이전 공연 장면.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 제공>

## 김단비·정윤준·김범창 ‘계속할 힘’ 공연

#### ‘나랩’ 30일 보헤미안 소극장

“오늘의 순간이 음악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힘이 되기를”

열정 가득했던 청년기를 거쳐 어엿한 ‘음악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 예술가가 ‘계속할 힘’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대표 김현무)이 문턱 시리즈 일환으로 마련한 ‘계속할 힘’이 바로 그것.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보헤미안소극장)

해금 아티스트 김단비와 기타리스트 정윤준, 밀티 관악기 연주자 김범창 등이 출연해 이색적인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연인과 이별한 뒤 창밖 훑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장작한 ‘it’s snowing’으로 막을 연다. 이어 곁을 떠날 땐 아이를 품에 안고 부르듯 한 노래 ‘아이’, 장마철 빗소리에 가려진 세상의 소음을 묘사한 ‘긴 소나기 내리고’ 등이 세 편 창작곡이 올려 퍼진다.

영화 ‘타이타닉’ OST로 알려진 ‘My heart will go on’,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수록곡 ‘Moon river’ 등 친숙한 영화음악도 만날 수 있다. 이번 공연을 위해 새롭게 해석한 곡 ‘밀크 셰이크’, ‘백만 송이 장미’ 등도 레퍼토리에 있다.

문턱 시리즈는 ‘공연장 문턱을 낮춘다’는 취지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펼쳐진다. 객석과 무대 거리가 가까운 소극장 특성상 음향률 ‘100%’ 즐길 수 있는 매력이다. 또 유료 반입이 어려운 대부분의 공연과 달리 무료로 유료 한 잔이 제공되며, 관객들은 이를 마시며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나랩 김현무 대표는 “관객 입장하신다 문턱을 낮춰라”라는 구호를 앞세워 관객들이 편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한 시리즈라며 “예술인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콜라보레이션 팀과 음악을 발굴하는 데에도 목표를 두고 있다”고 했다.

관람료 2만원 (학생권 1만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감독 7인 영화적 여정 ‘자기만의 길을 가다’

#### 광주극장·광주시네마테크, 9월 1일부터 ‘一人一派’

자신만의 분야에서 묵묵히 정진하며 일가를 이루는 예술가들이 있다. 페데리코 펠리니, 알프레도 히치콕 등 영상예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감독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一人一派(일인일파) - 자기만의 길을 가다’라는 주제로 기획전을 선보인다. 빅토르 에리세, 켈리 라이카트 등의 작품을 매주 1편씩 총 7편의 광주극장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기획전의 첫 테이프는 9월 1일 스페인 출신의 감독 빅토르 에리세의 장편 ‘클로즈 유어 아이즈’로 끊는다. 지난해 개봉한 이 작품은 50년간 단 세 편의 작품을 남긴 에리세의 신작으로, 프랑스의 유력 영화전문지 ‘까이에 뒤 시네마’의 ‘2023 베스트’에 선정됐다.

9월 7일, 17일에는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여덟 번째 장편 ‘소잉 업’을 스크린에 올린다. 끈기 있게 작업하는 평범한 예술가의 이야기를 미니멀리즘 시선에 담아냈다. 이어 9월 28일, 10월 2일에는 각각 60년대 이탈리아

리아 영화의 전설 마르코 벨로키오의 신작 ‘납치’를 만날 수 있다. 지난해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과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왕빙 감독의 다큐 신작 ‘흑의인’은 10월 3일, 5일 볼 수 있으며 크리스티안 페츨트의 ‘피닉스’, 아키 카우리스마키 ‘사랑은 낙엽을 타고’는 9월 29일, 10월 5일 각각 상영한다. 기획전은 독립프로듀서 라우라 시타렐라의 ‘트렌케 라우렌’을 10월 9일과 12일 선보이며 막을 내린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 시네아스트 7명이 구축해 온 영화적 여정을 만나는



영화 ‘피닉스’ 스틸컷.

자리다”며 “이외 10월 12일에는 영상전문지 ‘오콜로’를 창간한 유은성 영화평론가의 시네토크도 마련될 예정이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문화상품 3종 출시

ACC월드뮤직페스티벌 문화상품과 추억을 간직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024 ACC 월드뮤직페스티벌’과 연계한 문화상품 3종을 출시했다.

ACC재단은 월드뮤직페스티벌(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축제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피크닉 매트, 반팔 티셔츠, 자수 패치 등을 개발 출시했다. ACC 문화상품점 ‘들락 DLAC’, 페스티벌 기간 운영되는 현장 부스에서 구매 가능하다.

자수 패치는 행사명인 ‘2024 ACC WORLD MUSIC FESTIVAL’을 비롯해 ‘예술가’(ARTIST), ‘음악가’(MUSICIAN) 등 관련 전문 직군을 반영했다. 티셔츠나 예코백 등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활용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올해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은 한국 대중음악사를 대표하는 김장완 밴드를 비롯해 아시아의 정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연계 상품.

<ACC재단 제공>

상급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국내는 물론 몽골을 비롯해 대만, 이란, 체코 등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 16개 팀이 여름의 낭만을 펼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